

시온 주보

제2536호
2024년 12월 25일(다해)

주님 성탄 대축일

거룩한 밤

안토니오 다 코레조
(Antonio Allegri da Correggio, 1489-1534)
1530년경, 목판에 유채, 256×188cm
고전 거장 회화관, 독일 드레스덴



사람이 되시기 우리에게 사신,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위아드님으로서 지내신 평안을
찬양하며, 살아갈 은총을 청합니다.
+ 영 수렴 안드레아

가장 고요히, 가장 정숙되이 찾아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기쁜 성탄, 복된 새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정순택

구세주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한해동안에도 주님나라 선포에 고생 받으셨습니까.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께 화해해서 풍성히 강복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회복을위해 기도해주시는데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신해에
유경호 티몬테오 올림.

구세주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기원 하나이다!

구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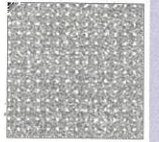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사랑이 힘입어 더욱
행복해하고 성례는 내일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이경상 바오로 주교 올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고요하고 거룩한 밤, 예수님께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전능한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당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한없이 낮추시어,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약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세상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불안정 속에 들려오는 불안과 분열의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닌 많은 이들이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며 목소리를 내지만, 그 외침이 외면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조주께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이 신비를 바라보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인간됨'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불안한 마음, 서로 다른 시각들, 서로 다른 해결책들 사이의 대립 가운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성탄은 말해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222항)에서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를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권력이 공간을 독점하는 것보다, 인간이 서로 보듬어 나가며 성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9 참조) 그러나 참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러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공동선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비록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소리는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

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따뜻한 인간 존중의 자세’로 지혜롭게 이 격동을 헤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어린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이 다시금 ‘희망’의 시기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모습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따뜻한 체온을 서로 느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인간성으로 빛나는 참된 평화와 희망이 차오르길 희망합니다. 그같은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입당 송 | 시편 2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 송 | 시편 96(95):1-2, 7, 12-13 (©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환호 송 |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 음 | 루카 2: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영성체송 |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입당 송 |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 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 송 | 시편 98(97):1, 2-3, 7, 12, 13 (© 3다르)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 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 요한 1:1-18 <또는 1:1-5, 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거룩한 밤

로마 신전의 폐허 속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선포됩니다. 성모님은 갖 태어난 아기로부터 퍼져 나오는 거룩한 빛을 유일하게 두려움 없이 바라보시며 함께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